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 요인의 분석

김 기 영(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외식조리관리학과 교수)

천 희 숙(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외식조리관리전공 박사과정)

I. 서론

1979년 일본의 롯데리아가 국내에 개점하면서 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였고 이는 외식산업에서 서구 식문화가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국민소득의 증가, 레저산업의 성장,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으로 국내 외식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대기업과 특급호텔의 외식산업의 진출, 외국계 외식업체의 국내 진입, 한식의 체인화로 인하여 산업적 규모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국내 외식산업은 1990년대 후반의 IMF라는 전환기를 거쳐 다시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전문가들은 이를 「예측불가능의 시대」, 「플러코스트(청룡열차)를 타는 시대」, 「레이스시대에서 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국내 외식산업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박형희: [http://www.think food.co.kr/upoad/외식/fs4.htm](http://www.thinkfood.co.kr/upoad/외식/fs4.htm)).

외식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외식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비중이 점차 증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식기회의 증대와 외식에 대한 사회적 개념의 변천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음식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으나 산업규모의 원리가 적용되고 외식행위 자체가 사회, 경제, 문화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외식산업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박한근:1999:4). 2003년 기준 외식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38조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의 발전 단계 중에서 외식산업의 성장기로 분류되는 1990년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던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통계청 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장요인을 종합·정리하여 향후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지원에 있어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산업 연관 분석

GDP(Gross Domestic Product)을 이용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주로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경제성장 정도를 비교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취득한 소득까지 합한 GDP의 개념을 고려할 때 순수한 내국인에 의한 추계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1936년 레온티에프(Leontief)에 의해 시작된 산업연관분석(Input - Output 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은 국민 경제를 여러 산업 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관관계를 살필 수 있고 어느 한 산업의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종수요가 생산·고용·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특징이 있어 국민경제의 파급효과, 장래의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 보다 깊이 있는 경제분석에 활용된다(한국은행, 1987: 7-8).

산업연관분석은 경험적 통계측정이 용이하고, 거시적 총량과 화폐의 흐름을 상세히 분석하며 투입요소의 대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최적해가 하나인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투자·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통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경제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소비·투자·수출 등의 최종 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투입계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생산, 고용, 물가 등에 미친 파급효과 측정에 유리하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은 임금·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가격파급효과 역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원유가격 등 특정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측정에 있어 여타의 다른 분석 수단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강광하, 2000: 9-10).

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산업연관표는 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며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 부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세로(列, column)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내며 투입구조는 원재료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부문과 임금·이윤·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고 한다. 또한 가로(行, row)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 형태로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나타내며 배분구조는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간 수요부문과 소비재·자본재·수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부문으로 구분되며 중간 수요액과 최종 수요액의 합계를 총수요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수요액에서 수입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고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한국은행, 1998).

<그림 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내생 부문				중간 수요계	외생 부문			수입 (공제)	총 산출액
		1	...	i	...		n	소비	투자		
내생 부문	1										
	:										
	i										
	:										
	n										
	중간투입계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부가가치세										
	총투입액										

자 료: 한국산업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3.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 작성 연혁

우리나라는 1958년 부흥부(復興部)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표는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컴퓨터의 이용 제약 등 여러 가지 애로로 인하여 19개 산업부문에 분류된 일종의 시간표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에 작성되었다. 1960년 산업연관표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1962년 3월에 작성하여 1년 4개월만인 1964년에 공표하였다. 당초 1960년 산업연관표는 주요 물자의 수급정책 등 제1차 경제개발계획 입

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지 못하였고 새로운 경제 분석방법으로 인식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은행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및 2000년의 총10회의 실측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1998년 및 2000년의 총 10회의 연장표를 작성하였다(한국은행:2001:9-10). 이외에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계획 수립시에 널리 활용되는 불변 산업연관표는 1975~1980~1985년, 1980~1985~1990년 그리고 1985~1990~1995년의 세 차례 작성되었으며 각국의 생산기술구조와 산업연관관계의 분석을 위해 한·일 국제산업연관표가 1970년, 1975년, 1985년 및 1990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시아 국제 산업연관표는 1975년, 1985년, 1990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표 1>에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성장과정을 보면 1950년대는 음식업의 태동기, 1960년대는 음식업의 침체기 및 여명기, 1970년대는 음식산업의 태동기, 1980년 초반은 외식산업의 도입 적응기, 1980년대 후반기는 외식산업의 적응 성장기 그리고 1990년대는 외식산업의 성장기로 분류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사, 1998(3):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의 성장기인 1990년대의 국민의 식생활과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 식약청, 산업 자원부,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던 경제적 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외식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변수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음식업 또는 식음료로 분류되어 추계되고 있지 않았으며 음식업으로 따로 분류된 통계청 자료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산업연관표의 생산, 수입,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비교 분석하여 1990년대 외식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경제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던 경제적 요인들의 변동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성장기여요인을 찾아 향후 외식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청에서 발표된 1975년에서 2002년까지의 외식비와 물가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외식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과 1995년 산업연관표의 생산, 수입, 부가가치, 취업, 고용변수들의 각 소비·투자·수출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변수를 도출한다.

셋째,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변수를 중심으로 외식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요인을 도출한다.

<표 1>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과정

구 분	GNP	성장 단계	외식산업의 동향
1950년대 (前)	0	음식업의 태동기	주막, 주식점, 목로, 전통 음식점 형태, 식량자원부족으로 침체 (45년 166점포), 식생활 및 식습관의 가내 주도형
이문설령탕(1907), 용금옥(30), 곰보추어탕(30), 한일관(34) 조선옥(37), 안동장(40), 고려당(45), 남초면옥(48), 하동관(48)			
1960년대	\$100 ~210	음식의 침체기 및 여명기 (6.25전쟁 후)	식생활의 궁핍, 밀가루 위주의 분식확산(유엔원조품), 식생활 개선 문제 부상, 일부 서구 음식문화 침투(우유 등)
뉴욕제과(67), 제과제빵, 제면, 재분업 중심의 식문화 개인업소 및 잡상인 대량 출현			
1970년대	\$248 ~1644	음식산업의 태동기 (음식업의발전기)	분식 및 대중 음식점의 우후죽순출현(한식, 중식위주), 경제개발계획 성공에 따른 식생활의 개선
난다랑(79.7) : 국내 프랜차이즈의 효시 롯데리아(79.10):서구식 외식의 효시(외식산업의 시발점)			
1980년대 (上)	\$1,592 ~2,158	외식산업의 도입 적응기 (패스트푸드중심)	영세업체의 난립, 프랜차이즈 속출(햄버거, 치킨, 국수, 맥주), 해외브랜드의 도입러시, 서구식 식문화의 유입 및 확산
아메리카나(80), 버거킹(80), 미스터도우넛(81), 원첵도우넛(82), KFC(84), 투모로우타이거(84), 신라당(80), 독일빵집(81), 장터국수(83)			
1980년대 (下)	\$2,194 ~4,127	외식산업의 적용성장기	원두커피, 양념치킨, 베이커리, 국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확대, 업체 난립, 다점포 위주, 한식체인 출현
피자헛(85), 맥도널드(86), 피자인(87), 코코스(88), 도토루(89), 만리장성(86), 크라운베이커리(88), 늘부보쌈(88), 나이스데이(88)			
1990년대	\$5,883 ~20,000	외식산업의 성장기	저성장침체기→ 회복기→ 전환기 주대기업진출, 시스템화, 프랜차이즈 활성화, 해외진출 패밀리 레스토랑 주도, 외식 근대화, 고감도 산업태 출현
하디스(90), TGI(94), 케니로저스(94), 베니건스(95), 마르쉐(96), 우노피자(96)			

자 료: 매일경제신문사, 외식산업창업과 경영강좌 교재, 1998(3), p. 13.

IV. 분석 결과

1. 소비자물가지수와 외식 물가지수간의 상관관계의 분석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외식물가지수는 <표 2>과 같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1945년부터 추계되었으나 외식비 항목이 1975년부터 추계되었기 때문에 두 변수의 비교기간을 1975년에서 2002년으로 한정하였다. Spss 10.0 패키지를 이용하여 외식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Pearson 상관계수는 0.991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외식물가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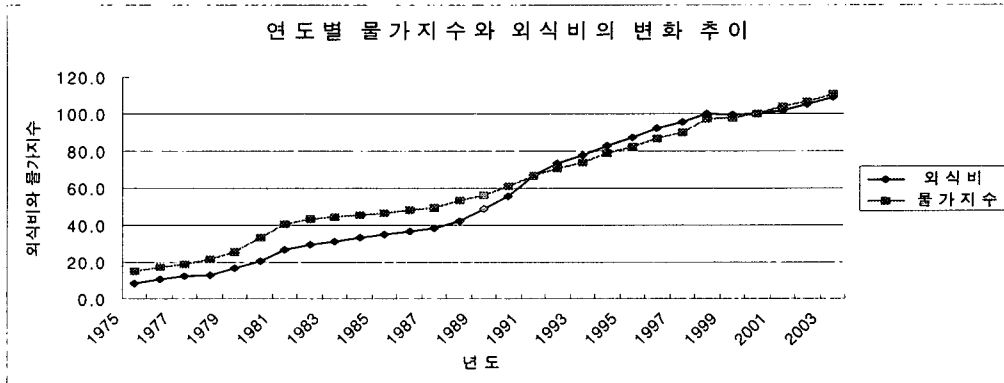
<표 2> 소비자 물가지수와 외식 물가지수

년 도	소비자 물가지수	외식 물가지수	년 도	소비자 물가지수	외식 물가지수
1975	15.0	8.2	1989	56.1	48.7
1976	17.3	10.3	1990	60.9	55.6
1977	19.0	12.0	1991	66.6	66.7
1978	21.8	12.8	1992	70.8	73.5
1979	25.8	16.4	1993	74.2	77.6
1980	33.2	20.8	1994	78.8	82.9
1981	40.3	26.4	1995	82.3	87.4
1982	43.2	29.5	1996	86.4	92.2
1983	44.7	31.3	1997	90.2	95.4
1984	45.7	33.4	1998	97.0	100.2
1985	46.8	35.2	1999	97.8	99.2
1986	48.1	36.7	2000	100.0	100.0
1987	49.6	38.4	2001	104.1	101.7
1988	53.1	42.2	2002	106.9	105.1

자 료: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1990년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와 외식물가지수간의 변화추이를 plotting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양의 비례관계가 있었으며,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식물가지수보다 높았으며,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식물가지수보다 낮았으며, 2000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외식물가지수보다 높았던 것은 외식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1991년에서 1999년 사이의 외식비의 증가가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그림 2> 1990년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와 외식물가지수의 변화추이



2. 1990년과 1995년 산업연관표의 각 항목별 비교 분석

1) 최종수요항목별 생산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비교 분석

<표 3>에서와 같이 1990년 외식산업에서 총 1조 9,509조원, 1995년에는 총 5조 1,985억원의 생산 유발액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었다.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1990년에는 민간소비지출 1조 1,946억원, 정부소비지출 1,176억원, 민간고정자본 2,014억원, 정부고정자본 352억원, 재고증가 17억원, 수출 5,001억원이 생산액으로 유발되었으며, 1995년에는 민간소비지출 2조 8,706억원, 정부소비지출 3,783억원, 민간고정자본 4,795억원, 정부고정자본 778억

<표 3> 1990년과 1995년의 최종수요항목별 생산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단 위 : 백만원)

	소 비		투 자			수 출	합계
	민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민간고정 자본형성	정부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가		
90년 생산 유발액	1,194,627	117,690	201,433	35,276	1,793	500,103	1,950,922
95년 생산 유발액	2,870,671	378,383	479,500	77,853	8,970	1,383,150	5,198,527
90년 생산 유발계수	0.011323	0.006488	0.003422	0.003865	0.006069	0.009408	.
95년 생산 유발계수	0.014143	0.010023	0.003709	0.004480	0.003900	0.012149	.
90년 생산 유발의존도	56.10	6.03	10.33	1.80	0.09	25.63	.
95년 생산 유발의존도	55.22	7.27	9.22	1.49	0.17	26.60	.

자 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원, 재고증가 89억원, 수출 1조 3,831억원이 생산액으로 유발되었다. 1990년과 1995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1995년에는 정부소비지출, 정부고정자본형성, 수출 항목의 생산유발계수가 증가하고 재고증가가 감소하였다.

2) 최종수요항목별 수입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비교 분석

<표 4>에서와 같이 1990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2,545억원, 1995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1조 3,859억원의 수입액이 유발되었다.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1995년에는 민간 소비지출에서만 2,545억원이 유발되었으나, 1995년에는 민간소비지출 1조 344억원을 비롯해서 정부소비지출이 740억원, 민간고정자본형성이 938억원, 정부고정자본이 152억원, 재고증가가 17억원, 수출이 1,667억원이 새롭게 유발하였다. 1990년과 1995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1995년에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 항목에서 새롭게 수입액이 유발되었다.

<표 4> 1990년과 1995년의 최종수요항목별 수입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단 위 : 백만원)

	소 비		투 자			수 출	합 계
	민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민간고정 자본형성	정부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가		
90년 수입 유발액	254,515	0	0	0	0	0	254,515
95년 수입 유발액	1,034,401	74,094	93,895	15,245	1,757	166,579	1,385,971
90년 수입 유발계수	0.002633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95년 수입 유발계수	0.005096	0.001963	0.000726	0.000877	0.000764	0.001463	.
90년 수입 유발의존도	100	0	0	0	0	0	.
95년 수입 유발의존도	74.63	5.35	6.77	1.10	0.13	12.02	.

자 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3)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비교 분석

<표 5>에서와 같이 1990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1조 1,1364억원이, 1995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2조 5,82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었다. 1990년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민간소비지출 6,376억원, 정부소비지출 685억원, 민간고정자본 1,173억원, 정부고정자본 205억원, 재고증가 10억원, 수

출 2913억원이 부가가치 유발액으로 유발되었으며, 1995년에는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민간소비지출 1조 4258억원, 정부소비지출 1,879억원, 민간고정자본 2,381억원, 정부고정자본 386억원, 재고증가 44억원, 수출 6,869억원이 부가가치 유발액으로 유발되었다.

<표 5> 1990년과 1995년의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계수 및 의존도

단위: 백만원

	소 비		투 자			수 출	합 계
	민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민간고정 자본형성	정부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가		
90년 부가가치 유발액	637,657	68,558	117,342	20,550	1,044	291,327	1,136,477
95년 부가가치 유발액	1,425,822	187,937	238,161	38,668	4,455	686,991	2,582,035
90년 부가가치 유발계수	0.006596	0.003780	0.001994	0.002251	0.003536	0.005481	.
95년 부가가치 유발계수	0.007025	0.004978	0.001842	0.002225	0.001937	0.006034	.
90년 부가가치 유발의존도	56.11	6.03	10.33	1.80	0.09	25.63	.
95년 부가가치 유발의존도	55.22	7.28	9.22	1.50	1.73	26.60	.

자 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표 6> 1990년과 1995년의 최종수요항목별 고용 유발인원, 계수 및 의존도

(단 위: 명)

	소 비		투 자			수 출	합 계
	민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민간고정 자본형성	정부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가		
90년 고용 유발인원	365,623	39,310	67,282	11,783	599	167,043	356,250
95년 고용 유발인원	643,159	84,775	107,430	17,443	2,010	309,888	465,881
90년 고용 유발계수	0.003782	0.002167	0.001143	0.001291	0.002027	0.003143	.
95년 고용 유발계수	0.003169	0.002246	0.000831	0.001004	0.000874	0.002722	.
90년 고용 유발의존도	56.11	6.03	10.33	1.81	0.09	25.63	.
95년 고용 유발의존도	55.22	7.28	9.22	1.50	0.17	26.60	.

자 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4) 최종수요항목별 고용 유발인원, 계수 및 의존도 비교 분석

<표 6>에서와 같이 1990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35만 6천명이, 1995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46만 5천명의 고용인원이 유발되었다. 고용유발은 취업유발과는 달리 자영업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1990년 최종수요항목별 유발인원은 민간소비지출 36만 5천명, 정부소비지출 3만 9천명, 민간고정자본 6만 7천명, 정부고정자본 1만 1천명, 재고증가 599명, 수출 16만 7천명이 고용 유발되었으며, 1995년에는 최종수요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은 민간소비지출 64만 3천명, 정부소비지출 8만 4천명, 민간고정자본 1만 7천명, 정부고정자본 10만 7천명, 재고증가 2천명, 수출 30만 9천명이 고용인원으로 유발되었다.

5) 최종수요항목별 취업 유발인원, 계수 및 의존도 비교 분석

<표 7>에서와 같이 1990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65만 1천명이, 1995년 외식산업에서는 총 116만 4천명의 취업인원이 유발되었다. 취업유발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1990년 최종수요항목별 유발인원은 민간소비지출 19만 9천명, 정부소비지출 2만 1천명, 민간고정자본 3만 6천명, 정부고정자본 6천명, 재고증가 327명, 수출 9만 1천명 취업 유발되었으며, 1995년에는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은 민간소비지출 25만 7천명, 정부소비지출 3만 3천명, 민간고정자본 4만 2천명, 정부고정자본 6천명, 재고증가 804명, 수출 12만 3천명이 취업인원으로 유발되었다.

1990년과 1995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589만명과 1,719만명으로 비슷하였지만, 외식산업에서는 1.78배의 취업유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1990년과 1995년의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 계수 및 의존도

(단위 : 명)

	소 비		투 자			수 출	합 계
	민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민간고정 자본형성	정부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가		
90년 취업 유발인원	199,885	21,491	36,783	6,442	327	91,322	651,640
95년 취업 유발인원	257,263	33,910	42,972	6,977	804	123,955	1,164,703
90년 취업 유발계수	0.002068	0.001185	0.000625	0.000706	0.001108	0.001718	.
95년 취업 유발계수	0.001267	0.000898	0.000322	0.000401	0.000350	0.001089	.
90년 취업 유발의존도	56.11	6.03	10.33	1.81	0.09	25.63	.
95년 취업 유발의존도	55.22	7.27	9.22	1.50	0.17	26.60	.

자 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ROM, 1998.

V. 결 론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변수 도출을 위하여 외식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외식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음식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외식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최종수요항목 중에서 많은 부분을 민간소비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발전하는 산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외식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는 외식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민간의 외식비 지출의 증가가 외식산업 성장의 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995년은 1990년에 비해 정부소비지출·민간고정자본형성·정부고정자본형성·재고증가·수출에서 3,515억원의 수입액이 새롭게 유발되었고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의존도는 1990년 민간소비지출은 100%이었으며 1995년에는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액은 소비 79.98%, 수출 12.02%, 투자 8.00%이었다. 이는 외식산업의 수입유발은 타 산업보다 민간과 정부소비지출항목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1990년대에는 COCO's, T·G·I Friday 등의 외국계 패밀리레스토랑, K·F·C, Burger's King 등의 패스트푸드 그리고 Araco와 같은 외국계 단체급식업체가 국내에 도입되어졌던 시기를 고려할 때, 1995년의 새로운 수입유발액이 외식산업의 성장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인 늘부·한우리가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등에 국내 브랜드를 역수출하고 있다.

셋째, 취업유발과 고용유발은 민간소비지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와 무급의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유발계수는 1990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대 대기업과 특급호텔의 외식업 진출이나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나 단체급식업체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취업자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외식산업이 성장하는 성장 요인이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생산·수입·부가가치·취업·고용유발에 있어서의 높은 민간의존도, 새로운 수입유발액의 증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과 호텔외식업 진출 그리고 새로운 취업자리의 창출로 분석되었다. 향후 외식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식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및 세금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모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 및 경제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찾았으나 외식산업이란 단어는 전무하였으며 음식업 또는 숙박업과 함께 분류 통합되어 추계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식산업의 개념

과 범주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며, 외식시장의 규모라든가 혹은 외식산업의 성장률에 관한 근거는 거의 다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점승록, 1997:10).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음식업이라고 분류되어 각종 통계자료가 추계되고 있었으나, 현재 무점포 영업과 같이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확대되어 가는 범주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외식산업의 매출규모가 축소되고 있었다. 따라서 시대흐름에 맞춘 정확한 외식산업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계·관리하는 관할 부서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광하(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pp. 9~10.
- 김민주(1998), “호텔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직무관련태도, 인적 서비스 제공수준과의 관계”,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2권 2호, pp. 278~284.
- 매일경제신문사(1998) 외식산업창업과 경영강좌 교재, p. 13.
- 박한근(1999), 우리나라 외식산업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p. 4.
- 박형희, 21세기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 [http://www.think food.co.kr/uproad/외식/fs4.htm](http://www.thinkfood.co.kr/uproad/외식/fs4.htm).
- 점승록(1997),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p. 10.
- 한국은행(1987), 산업연관분석해설-원리와 이용-, pp. 7~8.
- 한국은행(1998), 산업연관표 CD-ROM.
- 한국은행(2001), 199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pp. 9~10.
- Alexander, S. and Ruderman, M.(1987), “The Role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in Organizational Behavior”, Social Justice Research, 1, 177-198.